



사 진 보 도 자 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5. 7. (화)

배포

2024. 5. 7. (화)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멸종위기 대모잠자리 서식 확인

멸종위기종인 대모잠자리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다수 발견돼 관련 학계에 관심을 끌고 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실시한 봄철 생물다양성 조사에서 멸종위기 2급 대모잠자리가 발견됐다.

이번 조사는 도시숲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보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원광대 생명환경학과 임종옥 교수가 함께 참여했다.

대모잠자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의 잠자리과 곤충으로 몸은 갈색 바탕에 등줄이 검고 연못, 습지 등 습한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종이다.

최근, 환경오염 등으로 서식지와 개체수가 감소해 한국적색목록에 멸종위기 범주로 분류되어 있어 보전의 가치가 높은 종이기도 하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수목원을 찾는 관람객들이 우리 식물뿐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생태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 며 “앞으로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 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립세종수목원 정원도시숲본부 도시생물다양성실	책임자	실 장	피 정 훈 (044-251-0173)	
		담당자	주 임	윤 이 슬 (044-251-0219)	



<사진설명>

4월 30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대모잠자리